

September 18, 2006

#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표, 독일가는 까닭은?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해외 나들이’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긴 했지만 박 전 대표는 지난 6월 대표직 임기를 마친 이후, 가급적 정치적 행보를 자제한채 의정활동에만 전념해 왔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18일 박 대표의 해외행에 대해 “이미 다른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내륙운하 등의 정책 파트를,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민생체험 등을 선점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해외에 얼굴을 알릴 수도 있어 박 대표에겐 이번 해외행이 일석이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의 주된 실정으로 보고 있는 경제와 외교 두 분야 가운데, 아직 다른 대선 주자들이 확실한 주도권을 쥐지 못한 외교 분야에서 박 대표가 블루오션을 찾으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챙기는 박 전 대표가 정기국회 회기중에 해외를 방문하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이번에 방문하는 장소와 만나는 인사들의 면면을 봐도 단순한 초청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는 23일 부터 내달 1일까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하는 박 전 대표는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를 만날 계획이며,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EU) 본부에도 들를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독일과 벨기에 일정뿐 아니라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1월에는 중국과 인도, 프랑스 등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문에서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새마을운동에 대해 특강을 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해석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독일 방문은 독일 아데나워재단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유정복 의원은 “외교분야 선점은 맞지 않은 얘기다.

정치적인 해석이 지나치다”며 “비록 정기국회 기간 중이긴 하지만 특별히 의정활동 하는데는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September 18, 2006**

# 헤럴드경제

## Übersetzung

### Was steht hinter dem Deutschlandbesuch der ehemaligen Parteivorsitzenden Park Geun-hye?

Seitens der Politiker werden geteilte Meinungen zum Deutschlandbesuch der Präsidentschaftskandidatin Park Geun-hye geäußert. Seit ihrem Amtseintritt als Parteivorsitzende kontrolliert sie weitgehend das politische Geschehen im Parlament. Jedoch hat sie sich mit dem ehemaligen Bürgermeister von Seoul, Lee Myong-bak, der einen Kanal für die Stadt baute, und Sohn Hak-kyu, der einen wichtigen Beitrag zum Sozialwesen leistete, zu messen. Dies soll Park Geun-hye zu ihrer Reise bewegt haben. Im Ausland könne sie sich unter Umständen als angesehene Präsidentschaftskandidatin präsentieren und sich als kritische Außenpolitikerin profilieren.

Zwischen dem 23. September und dem 1. Oktober wird sie unter anderem Bundeskanzlerin Angela Merkel in Deutschland treffen und die NATO sowie die EU in Brüssel besuchen. Desweiteren wird sie im November China, Indien und Frankreich einen Besuch abstatten.

„Der Deutschlandbesuch erfolgte auf Einladung der Konrad-Adenauer Stiftung“, so die frühere Parteivorsitzende, und sollte politisch nicht überinterpretiert werden.